논어 11편 선진 14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由之瑟，奚爲於丘之門？」門人不敬子路。子曰：「由也升堂矣，未入於室也！」

독음 · 자왈 유지슬 해위어구지문 문인불경자로 자왈 유야승당의 미입어실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가 자로의 거문고 연주를 평하자 제자들이 자로를 낮추어 보았다. 공자는 그도 이미 높은 단계에 이르렀고 마지막 경지에만 아직 못 갔다고 바로잡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由 말미암을 유 유 / 之 갈 지

瑟 비파 슬 슬 / 奚 어찌 해 해 / 爲 할 위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丘 언덕 구 구 / 門 문 문 문 / 人 사람 인 / 不 아닐 불

敬 공경할 경 경 / 路 길 로 로 / 也 어조사 야 / 升 되 승 승

堂 집 당 당 / 矣 어조사 의 / 未 아닐 미 미 / 入 들 입 입

室 집 실 실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